

한국 설화문에서 주제표현의 연속성

° 정 희 자
부 산 외 국 어 대 학 교

Topic Continuity in Korean Narrative

Hi-Ja Chong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

언어사용 목적이 효율적인 정보교환에 있다. 정보교환에 필요한 의미는 하나의 문에서 보다는 담화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담화분석을 토대로 의미, 형식, 기능의 관계를 검토하여 언어의 한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토대로 한국 설화문에서 주제표현의 방식과 연속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측정된 구분들은

약

영조응,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뒤에 오는 명사, 소유격을 따르는 명사, 한정적 명사, 비한정적 명사, 조건절, 모두 8개 구조들이다. 이들은 주제표현의 연속성 정도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이는 이들의 통사적 특징이외에 다른 화용상의 요인들이 작용함으로써 현상이다.

I. 서론

70년대 초이래 학자들의 관심이 증례의 통사위주의 언어기술로 부터 의미와 화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어떤 구조가 사용되는가 하는 형식-의미-기능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런 추세에 따라, 담화의 기능적 개념인 주제(topic)에 관한(예:주제의 특성, 위치, 기능, 표현방법, 주어와의 관계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 설화문에서 주제가 표현되는 문법구조들과 구조별 주제표현의 연속성 측정을 목적으로하며 다음과 같은 가정(assumptions)하에 이루어졌다. 첫째, 주제의 특성을 화제성(thematicity), 기지성(givenness), 한정성(definiteness)과 같은 자질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주제성의 정도차이가 있으나 한 문장내에 한개 이상의 주제 가능요소들이 나타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주제(the primary topic)는 문두에 위치한다. 넷째, 주

제는 무표주제(unmarked topic)와 유표주제(marked topic)로 구분된다. 무표주제는 문두에 나타나고 접사 -는/은의 형태로 표지되며, 이 접사가 붙은 논항이 그 문의 화제(theme)역할을 한다. 유표주제는 문두에 나타나며 주어 표시 접사 -가/이를 수반하여 담화상의 기능과 통사상의 기능을 동시에 나타내는 주제를 뜻한다. 또한 주제는 그 역할에 따라 독립적 주제와 대조적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독립적 주제는 단지 문의 화제역할을 함으로 담화의 서술내용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대조적 주제는 대조의 상대가 필요하며(그 상대가 표면화 되는 아니 되든), 이들 둘 또는 둘 이상의 멤버들 사이에 서술내용이나 진리치가 상반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주제다. 무/유표 주제는 통사적, 형태적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독립적/대조적 주제는 화용적 기준에 의한 분류다. 예를들면,

1.a. 나는 순이에게 돈을 주었다 (무표 독립적 주제).

b. 손이에게는(다른 사람이 아닌) 나는 돈을 주었다
(무표 대조적 주제).

c. 돈은(다른 물건이 아니라) 내가 손이에게 주었다
(무표 대조적 주제).

2. 질문 : 어제 누가 손이를 때렸니?

답 : a. 어떤아이가 때렸어요 (유표 중립적 주제).

b. 철이가(내가 아니라) 때렸어요
(유표 대조적 주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문법구조들은 영조응(zero-anaphora), 인정대명사, 지시대명사, 지시사 뒤에 오는 명사, 소유격 뒤에 오는 명사, 한정적 명사(definite NP's), 그리고 조건어(conditionals), 모두 8가지다. 이 구조들에 의하여 나타난 주제 표현의 연속성의 차이는 독자들의 작품이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분석한 자료는 김형욱씨의 "혁명과 이상"이라는 소설인데, 한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증언의 형식으로 다루었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작가가 사실, 또는 사실이라고 믿는 것(non-fiction)을 기교적인 언어구사 없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평범한 문체로 썼기 때문이다. 분석된 범위는 500 개의 절로 20 페이지의 분량이었다.

분석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면을 측정하였다. 첫째, 회고성(look-back)의 측정으로, 발화문에 나타난 주제와 전술문에 나타난 동일주제와의 간격을 측정하는 것으로, 두 동일주제 사이에 나타나는 절의 수로 측정했다. 최소가치는 1을, 최대가치는 20을 주었다. 두 동일주제 사이에 1개의 절이 나타나면 최소가치 1을 주고, 20개 또는 그 이상의 절이 나타나거나 담화에 그 주제가 처음 소개될 때는 최대까지 20을 주었다. 둘째, 지속성(persistence)을 측정했다. 이는 주제 전달에 대한 저자의 의도 측정으로, 발화문에 나타난 주제가 몇 개의 후술문에 나타나가를 절의 수로 측정하였다. 동일주제가 후술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는 최소가치 0을 주었으나, 최대가치는 한정하지 않았다. '회고성'과 '지속성' 측정에서 유사어는 동일주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복수명사의 취급은 동일복수명사만 계산에 넣었으며, 그 복수형을 이루는 개체나 사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셋째, 모호성(ambiguity)의 측정이다. 및

다른 5개의 전술문에 나타난, 발화문의 주제와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논항의 수를 계산했다. 지정된 범위 내에 1개의 논리적 관계의 논항이 나타날 때 1의 가치를,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나타날 때는 2의 가치를,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는 3의 가치를 주었다. 예를들면, 비한정적 명사에는 항상 3의 가치를 주었다. '모호성' 측정법이 다른 두 측정법과 상이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표들에서 '모호성' 측정 논항수가 다른 논항수와 달리 나타난다. 넷째, 평균치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 각 구조는 두 개의 분야(인간과 비인간)로 분류되었다. 2. 분야별, 구조별, 항목별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3. 평균치는 분야별, 구조별, 항목별로 가치의 합을 측정 논항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측정방법은 Brown (1983)³⁾의 모형을 따랐다.

II 주제표현의 연속성 측정에 사용된 문법구조

2.1 영조응(Zero-anaphora)

전술문에서 언급된 지시제(referent)나 정보는 청자의 기억 속에 기록된다. 이 기록된 기지정보(given information)의 잉여성(redundancy)을 나타내는 논항이 발화문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를 생략된 조응, 또는 영조응이라 한다. 예를들면,

3. a: 나는 어제 시계를 싼 값으로 샀어. 그런데 (그것은) 벌써 고장났어.

b: (그것의)상표가 무엇이었니?

영조응의 사용은 문미사(sentence endings)에 의하여 좌우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문미사들은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의 표지(예: 명령, 약속, 제안, 진술등)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된 주어가 그 연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의 행위자인지 수령자(recipient)인지를 청자는 정확하게 이해한다. 예를들면,

4. (나는)내일 도와주^ㅁ나.

문4에서 약속의 의미가 문미사 '마'에 의하여 전달된다 주어는 약속된 행동을 이행하여야 하는 화자인 것이다.

영조응은 또한 화맥(pragmatic context)에 의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담화의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를 가르키는 인정대명사 "나"와 "너"는 대조적 의미나 독자적 의미(exhaustive meaning)를 강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종 생략된다. 이는 그들이 화맥(discourse context)으로 부터 쉽게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a. (너는)어디 가니?

b. (나는)집에 간다.

담화의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애매하여(친분상, 사회적 신분상, 연령상), 적절한 대명사 선정에 불편을 느낄 경우 명조응을 쓰는 경우가 많다.

2.2 인칭대명사 (Personal Pronouns)

인칭대명사는 수와 성별이 구별되어 있다. 인칭대명사의 선정에는 사회-문화적 제약들(예: 사회적 신분, 성별, 연령, 친밀도등)이 작용한다. 이들 요인에 따라 화계(speech level)와 공대 표현이 결정된다.

2.3 지시대명사 (Demonstrative Pronouns)

지시사 "이", "그", "저"에 명사격 접사 '것'이 결합된 구조다. 지시대명사의 사용에 사회-문화적 제약이 따른다. 즉 사람을 지칭할 때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2.4 지시사 뒤에 오는 명사 (Demonstratives + NP)

지시사와 명사가 결합된 구조로 지시사는 후행 명사를 한정화(definitization)하는 기능과 담화 참가자들(화자와 청자)과 지시체의 상대적 거리감(deictic proximity/remoteness)을 나타내는 지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시사 "이"는, 청자와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화자에게서 가까운 것을, "그"는 지시체가 화자로부터는 머나 청자에게 가까운것, "저"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먼 지시체에 사용된다.

2.5 한정적 명사 (Definite Nouns)

한정성(definiteness)을 나타내는 관사체제가 없는 한국어에서는, 발화시 한정형용사나 관계사절에 의하여 명사에 한정성이 부여된다. 이 한정성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 담화가 지속되는 동안만 지시체가 청자의 기억속에 등록된다.

6. 책상위에 놓여있는 노란 모자는 순이의 것이다.

이외에, 수식어구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기억과 의식속에 임시 또는 영구히 기록되어 있는 한정적 명사가 있다. 이러한 한정적 명사가 담화에 등록된다.

7. 오전 10시에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있을 예정이다.

문7에서 화자나 청자 모두가 "대통령"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이해한다.

2.6 비한정적 관련 명사 (Indefinite Referentials)

논항의 비한정적 관련성은 문맥으로, 또는 그 논항에 첨가된 한정사(determiner:어떤, 한)로 묘사된다.

8. 오늘 오후에 어떤 학생이 당신을 찾아 왔어요.

문8에서 화자는 찾아온 학생에 관하여 한정적 정보(definite information)를 주지 못하나, 청자와의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다.

2.7 고유명사 (Names)

사람을 칭하는 고유명사의 사용에는 사회-문화적 제약이 따른다. 제약 요인들로는 성별차, 연령차, 사회적 신분차, 친숙정도 등이 있다. 구어체 담화에서 보다 문어체 담화에서 사람의 이름이 좀 더 자유롭게 쓰인다.

2.8 소유격 뒤에 오는 명사 (Possessives + NP)

소유격은 후행 명사를 한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2.9 조건문 (Conditionals)

조건문은 조건접사 "-면" 또는 "머는"을 논항에 붙여 이루어진 구문으로, "면"은 조건절과 주절 사이의 잠정적 관계를 암시한다. 한국어에서 "-면" 구문은 항상 조건 'if'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때 'when' 또는 'whenever'를 의미하기도 한다.

9.a.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는) (내게) 돈을 주겠다 (조건).

b.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는) (내게) 돈을 주었다 (때).

"-면"구문에서 지시된 사항이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을 화자가 확신할 때, 접사 "면"은 때를 의미한다. '-면'구문이 주절에 선행하고,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그 조건절은 그 문의 주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III. 결과와 설명

3.1 인간임(Humanness)과 주제표현의 연속성

한국 설화본에서 연속적인 주제 표현의 요소로 '인간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최고성'과 '지속성'측정에 인간지시 논항(human argument)과 비인간지시 논항(non-human argument)사이

의 자가 심하다. 설화문에서 전자가 더 자주 쓰이며, 주제로서 지속력도 더 높다. 사람들은 대체로 행위자(agent) 또는 경험자(experiencer)로 주어의 역할을 한다. 분석된 자료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논항이 대부분 주어의 위치에, 비인간지시 논항은 목적어 또는 사격의 위치에 나타난다. 환언하면, 인간지시 논항은 일반적으로 제1주제의 위치에, 비인간지시 논항은 제2주제의 위치에 나타난다. '모호성'측정에서 인간지시 논항이 비인간지시 논항보다 낮은 평균치를 보인다. 이는 사람에 대하여 논할 때 독자들의 주제확인이 용이함을 나타낸다.

항목		회고성	지속성	모호성
평균치	인간	6.50	2.90	2.03
	비인간	13.34	1.00	2.33
논항수	인간	453	453	305
	비인간	454	454	363

표 1. 인간/비인간 - 연속적 주제표현의 요소

3.2 봉사구조와 주제표현의 연속성

3.2.1 영조응

영조응의 측정결과가 표2에 나타나 있다. 지시체가 인간이나 비인간이나에 따라 주제표현의 지속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분석된 작품에서 영조응 현상은 문두, 주어의 위치에서 일어난다. 인간지시 논항이 일반적으로 주어로 쓰이며, 주어가 저자를 의미하는 1인칭 대명사 "나" 일 경우 이는 가끔 생략되어 영조응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자/독자의 화용지식(pragmatic knowledge)으로 생략된 주어의 복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 전술문에서 언급되어 일단 독자의 기억속에 기록된 지시체가 잇따른 후술문에서 화제의 역할을 할 경우, 지시정보(given information)의 중복을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이 지시체는 영조응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신정보 제공의 논항들은 생략이 불가능 하며 주로 목적어의 위치에 나타난다.

항목		회고성	지속성	모호성
평균치	인간	1.04	4.72	1.20
	비인간	1.00	1.00	1.00
	총평균	1.04	4.41	1.19
논항수	인간	63	63	30
	비인간	2	2	2
	총평균	65	65	32

표2. 영조응-연속적 주제표현 요소

3.2.2. 인칭대명사

담화의 참가자들(화자, 청자, 제삼자)은 문에서 대명조응사(pronominal anaphora)인 "나", "너", "그"로 표기된다. 구어체 담화에서 1,2인칭 인칭대명사 "나"와 "너"는 자주 생략된다. 그러나 그들이 대조적 의미를 나타내거나 초점을 이룰 경우에는 생략되지 않고 표면화된다. 분석된 작품에서 독자를 칭하는 2인칭 인칭대명사 "너"는 배경정보를 나타내는 요소로 언제나 생략되지만, 저자를 표시하는 1인칭 인칭대명사 "나"의 사용빈도는 비교적 높다. 이는 저자가 그 문의 화제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독자에게 들려주려는 저자의 화용상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 이런 현상은 가공의 세계를 묘사하는 일반 소설보다도 현실세계의 사건을 묘사하는 사실소설(non-fiction)에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

표3에서 주제표현에 관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환언하면, 연속적인 주제표현의 의도가 강할 때, 작가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주제표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인간성'(humanness)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일치한다. 영어에서와는 달리, 한국어에서 무생물이나 비인간적 생물을 가르키는 삼인칭 인칭대명사의 형은 없고, 이들은 지시대명사로 묘사된다.

항목		회고성	지속성	모호성
평균치	인간	3.16	6.18	1.69
	비인간	-	-	-
	총평균	3.16	6.18	1.69
논항수	인간	79	79	56
	비인간	-	-	-
	총계	79	79	56

표3. 인칭대명사-연속적 주제표현 요소

표3과 2를 비교, 검토할 때 대명조응사인 인칭대명사를 쓸 경우에, 생략형인 영조응을 쓸 때 보다 '지속성'의 평균치가 높다. 이런 현상은, 독자의 주제확인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될 경우, 작가는 영조응보다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지시체가 그 문의 주제임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3.2.3 지시대명사

지시사(deixis) "이", "그", "저"와 명사화 접사 "-것"

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지시대명사의 사용에는 사회문화적 제약이 작용한다. 이들은 사람을 나타내는 논항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단지 동물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논항으로 사용된다. 지시사들이 가지고 있는 원근표현의 특성(deictic proximity/remoteness)으로, 화자/청자와 제3의 사물(또는 동물)과의 상대적 거리에 따라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또는 "저것"이 선택된다.

설화문에서 지시대명사 "이것"과 "그것"은 전술문에 언급된 내용을 뜻하는 명목으로도 쓰인다. 직전 전술문(immediately preceding clause)의 내용은 "이것"으로, 그외의 전술문에 나타난 내용은 "그것"으로 표시된다. 이는 지시사 "이"는 근접성(proximity)을, "그"는 거리감(remoteness)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시사의 원근표시의 특성은 작가의 심리적인 면에도 영향을 준다. 작가는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겨지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나타낼 때는 지시대명사 "이것"을 사용하고, 이미 지나버린, 작가가 주장하려는 내용과 거리가 멀거나, 동의하지 않는 내용은 "그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지시대명사의 사용은 작가의 화용상의 목적과도 관계가 있다.

지시대명사의 사용은 구어체 담화문과 문어체 담화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어체 담화는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선정도 이들 두 참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이"-화자중심, "그"-청자중심, "저"-화자와 청자중심). 이와는 달리, 분석한 문어체에서 독자는 배경적 요소로 표현에 나타나지 않고 발화문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위주로 지시대명사가 선정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이것"과 "그것"만이 사용된다 (표4).

		주 어	목 적 어	사 격 어	계
지 명 시	이 것	6	3	2	11
	그 것	5	2	.	7
대 사	저 것
계		11	5	2	18

표4. 지시대명사의 사용빈도

지시대명사의 측정결과가 표5에 나타나 있다. 전술된 정보의 잉여성(redundancy)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명조응사로서 지시대명사는, 주제표현의 연속성 측정

에서, 인칭대명사와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항 목		회 고 성	지 속 성	모 호 성
평 균 지	인 간	-	-	-
	비 인 간	1.05	2.00	1.60
	총 평 균	1.05	2.00	1.60
논 항 수	인 간	-	-	-
	비 인 간	18	18	15
	총 계	18	18	15

표5. 지시대명사-연속적 주제표현 수단

표5와 3을 비교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설화문에서 비인간지시 논항보다 인간지시 논항의 사용 빈도 수가 높다. 이것은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논하기를 좋아한다는 Givón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주제표현의 지속성에서 인간을 나타내는 인칭대명사가 비인간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인다. 이는 설화문의 인간중심적(human-centered)특성을 암시한다.

3.2.4 지시사 뒤오는 명사

지시사 "이", "그", "저"가 명사 앞에 와서 뒤의 명사를 한정적 명사(definite noun)로 지정화(definitization)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지정화의 특징으로 인하여 지시사는, 한정성이 높은 고유명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구조는, 지시대명사와는 달리, 인간지시 논항과 비인간지시 논항, 어느것에나 쓰인다. 그러나 사용빈도수는 후자의 경우가 높으나(표6), 주제표현의 연속성에는 전자의 경우가 높다(표7). 지시사를 따라오는 명사가 주제표현의 수단으로 쓰였을 때는 주어의 위치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목적어 위치에 나타난다(표6). 이는 주어의 위치가 제1주제의 위치(the primary topical position)며 목적어의 위치는 제2주제의 위치임을 나타내준다.

구 분	주 어	목 적 어	간 접 목 적 어	소 유 격 어	사 격 어	총 계
인 간	11	.	.	3	.	14
비 인 간	6	10	.	.	8	24
총 계	17	10	.	3	8	38

표6. 지시사+명사 구문의 사용빈도

항 목	회 고 성	지 속 성	모 호 성
평 인 간	3.07	3.66	1.80
비인간	4.04	0.84	1.40
총평균	3.68	1.37	1.53
논 인 간	14	14	10
비인간	24	24	22
총 계	38	38	32

표7. 지시사+명사구문-연속적 주제표현 요소

3.2.5 소유격 뒤에 오는 명사

이 구분은 소유격이 후행 명사를 지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 구분은 인간지시 논항과 비인간지시 논항으로 모두 쓰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가 더욱 많은 것은 사회 문화적 제약, 즉 사람을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묘사하는 것을 삼가는 풍습 때문이다. 사회상이나 문화상을 반영하는 한국 설화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8은 이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구 분	주 어	목적어	간접목적어	소유격어	사격어	총 계
인 간	2	4	.	.	.	6
비인간	23	25	.	.	16	64
총 계	25	29	.	.	16	70

표8. 소유격+명사 구문의 사용빈도

소유격이 후행 명사를 지정화하는 정도(definitizing degree)는 지시사보다 약하며 이 구분이 주로 비인간지시 논항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구조의 주제표현 연속성의 정도가 낮음을 나타내 준다. 이 점이 표9에 명료히 나타나 있다.

항 목	회 고 성	지 속 성	모 호 성
평 균 지	인 간 10.5	2.00	2.00
비인간	9.76	0.70	2.37
총평균	9.82	0.81	2.33
논 항 수	인 간 6	6	6
비인간	64	64	59
총 계	70	70	65

표9. 소유격 + 명사 구문 - 연속적 주제표현 요소

3.2.6 고유명사

고유명사에 의하여 표현된 주제의 연속성 정도가 표10과 11에 나타나 있다. 인간지칭 고유명사와 비인간지칭 고유명사는 사용 빈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문에서 제1주제인 주어의 위치에 나타나며, 후자는 제2주제인 목적어나 배경으로 나타난다.

	주 어	목적어	간접목적어	소유격어	사격어	총 계
인 간	125	35	17	32	26	235
비인간	9	17	.	.	14	40
총 계	134	52	17	32	40	275

표10. 고유명사의 사용빈도

표11에서 인간지칭 고유명사가 비인간지칭 고유명사보다 주제표현의 지속성이 높다.

항 목	회 고 성	지 속 성	모 호 성
평 균 지	인 간 9.37	3.70	2.41
비인간	16.17	0.48	2.35
총평균	10.36	2.57	2.40
논 항 수	인 간 235	235	148
비인간	40	40	31
총평균	275	275	179

표11. 고유명사- 연속적 주제표현 요소

3.2.7. 한정적 명사

한정적 명사(definite NP's)의 측정결과가 표12와 13에 나타나 있다. 한정적 명사는 인간지시 논항에서 보다는 비인간지시 논항으로 더욱 많이 쓰인다. 전자의 경우로 쓰일 때는 한정적 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후자의 경우로 쓰일 때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 한정적 명사의 한정성(definiteness)은 그 명사의 앞에 오는 한정 형용사나, 뒤에오는 관계사절에 의하여 나타난다. 분석된 설화본에서 작가는 독자가 주제 확인의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할 때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명사의 한정성을 나타내 주며 주제확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경우 그 지시체의 한정성은 담화가 지속되는 동안만 지속된다.

	주 어	목적어	간접목적어	소유격어	사격어	총 계
인 간	12	.	2	5	2	21
비인간	30	48	.	24	41	143
총 계	42	48	2	29	43	164

표12. 한정적 명사의 사용빈도

항 목	회 고 성	지 속 성	모 호 성	
평균치	인 간	6.00	1.33	1.86
	비인간	12.51	2.57	2.33
	총평균	11.68	2.34	2.22
논항수	인 간	21	21	21
	비인간	143	143	68
	총 계	164	164	89

표13. 한정적 명사 - 연속적 주제표현 요소

3.2.8 비한정적 관련 명사

비한정적 관련 명사(indefinite referentials)의 측정 결과는 표14와 15에 나타나 있다. 비한정적 관련 명사는 담화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체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설화본에서 작가가 비한정적 명사를 사용하여 연속되는 주제를 나타내고자 할 때 독자는, 다른 어떤 구조를 사용했을 때보다, 주제 확인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는 비한정적 명사가 청자의 의식 속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또한 문맥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한정적 관련명사는 연속적인 주제표현의 요소로 가장 적합치 못한 구조다.

	주 어	목적어	간접목적어	소유격어	사격어	총 계
인 간	4	.	.	1	1	6
비인간	22	94	.	.	46	162
총 계	26	94	.	1	47	168

표14. 비한정적 관련 명사의 사용빈도

항 목	회 고 성	지 속 성	모 호 성	
평균치	인 간	14.16	0.66	6.00
	비인간	17.63	0.80	4.85
	총평균	17.50	0.79	4.90
논항수	인 간	6	6	4
	비인간	162	162	86
	총 계	168	168	90

표15. 비한정적 관련 명사 - 연속적 주제표현 요소

3.2.9 조건절

분석된 자료에 나타난 조건절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제표시 요소로서의 기능을 일반화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구어체 담화에서 이 구문은 자주 쓰이는 경향이 있다.

3.2.10 모든 구조들의 주제 표현의 연속성 측정

표16과 17은 항목별로 분석된 모든 구조들의 측정 결과를 명료히 나타내고 있다. 주제표현 연속성의 정도에 따라, 최대 연속적인 구조로부터 최소 연속적인 구조로, 그 순위를 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1.영조응, 2.인칭대명사, 3.지시대명사, 4.고유명사, 5.한정적 명사, 6.지시사 뒤에 오는 명사, 7.소유격 뒤에 오는 명사, 8.비한정적 관련 명사의 순이다.

	논 항 수			회 고 성		
	인 간	비인간	총 계	인 간	비인간	평 균
영 조 응	83	2	65	1.04	1.00	1.04
인 칭 대 명 사	79	-	79	3.16	-	3.16
지 시 대 명 사	-	18	18	-	1.05	1.05
고 유 명 사	235	40	275	9.37	16.17	10.36
한 정 적 명 사	21	143	164	6.00	12.51	11.68
지 시 사 + 명 사	14	24	38	3.07	4.04	3.68
소 유 격 + 명 사	6	64	70	10.5	9.76	9.82
비 한 정 적 명 사	6	162	168	14.16	17.63	17.50

	지 속 성			모 호 성		
	인 간	비인간	평 균	인 간	비인간	평 균
영 조 응	4.72	1.00	4.41	1.20	1.00	1.19
인 칭 대 명 사	6.18	-	6.18	1.69	-	1.69
지 시 대 명 사	-	2.00	2.00	-	1.60	1.60
고 유 명 사	3.70	0.48	2.57	2.41	2.35	2.40
한 정 적 명 사	1.33	2.57	2.34	1.86	2.33	2.22
지 시 사 + 명 사	3.66	0.84	1.37	1.80	1.40	1.53
소 유 격 + 명 사	2.00	0.70	0.81	2.00	2.37	2.33
비 한 정 적 명 사	0.66	0.80	0.79	6.00	4.85	4.90

표16. 모든구조의 측정 - 항목별, 분야별 분석

항 목	회 고 성	지 속 성		
구 조	영 조 응	1.04	인 칭 대 명 사	6.18
	지 시 대 명 사	1.05	영 조 응	4.41
	인 칭 대 명 사	3.16	고 유 명 사	2.57
	지 시 사 + 명 사	3.68	한 정 적 명 사	2.34
	소 유 격 + 명 사	9.82	지 시 대 명 사	2.00
	고 유 명 사	10.36	지 시 사 + 명 사	1.37
	한 정 적 명 사	11.68	소 유 격 + 명 사	0.81
	비 한 정 적 명 사	17.50	비 한 정 적 명 사	0.79

항 목	모 호 성	
구조	영 조 응	1.19
	지 시 사 + 명 사	1.53
	자 시 대 명 사	1.60
	인 칭 대 명 사	1.69
	한 정 격 명 사	2.22
	소 유 격 + 명 사	2.33
	고 유 명 사	2.40
	비 한 정 격 명 사	4.90

표17. 모든 구조의 측정 - 인간, 비인간 총평균치 기준

IV. 결 론

한국 설화본에서 주제가 어떤 통사구조들에 의하여 묘사되며, 묘사된 주제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가를 구조별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결과를 다음 6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설화본에서 '인간됨'(humanness)은 주제의 표현과 표현된 주제의 지속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논항이 나타내는 지시체가 사람일 경우, 이 논항은 나타나는 문에서 화제 (theme)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비인간지시 논항들이 화제역할을 하는 경우가 드물며, 한다 하여도 곧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분석된 구조들은 주제표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각기 다른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Givon이 주장하는 연속변이(Cline)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자료분석과 구조별 측정항목들('회고성', '지속성', '모호성')의 상호작용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제표현의 문법구조중 영조응과 인칭대명사가 가장 높은 사용 빈도수를 나타내며 주제표현의 지속성도 두드러진다. 인칭대명사가 주제로 쓰일 경우 무표주제 접사 -는/은을 수반하는 경우가 유표주제 접사 -가/이를 수반하는 경우보다 많다. 넷째, 주제표현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는,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통사외적 요인들(예: 작가의 담화목적, 사회문화적 제약, 작가-독자의 회용상의 지식등)이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주제연속성이 강한 구조일수록 표현이 간단하다. 끝으로, 구어체와 문어체 담화본에서 사용되는 주제표현의 방법과 연속성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정보전달의 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참고문헌

1. 정연규, For a New Typology of Korean Discourse-Functionalism, P.95, PH.D.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1979.
2. 장석진, 화용론연구, P.60, 탑출판사, 1986.
3. Brown, C. Topic Continuity in Written English Narrative, In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V.3, P.318-320,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3.
4. Givon, T. Topic, Pronoun and Grammatical Agreement, P.152, In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Inc., 1976.